

# ‘번역 용어의 통일’ 해결돼야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원전연구’ 개선점 모색 위한 토론회

불교학계 원전연구 역량이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역본 원전 연구에 급급하던 불교학계가 이제는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베트어본 불교원전을 능숙하게 다룰 정도로 체질이 강해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이 발령하는 전문학술지 <불교원전연구>가 있다.

<불교원전연구>는 불교 원전 자료 소개 및 원전 연구 풍토 진작을 위해 2001년 창간됐다. 한역본은 물론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베트어본 경·율·논을 연구·양해 소개하는 국내 최초 불교원전 관련 전문 학술지. 지금까지 8권이 간행됐으며 총 55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은 창간 4년을 맞아 국내 최초 불교원전 관련 전문 학술지 <불교원전연구>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12월 27일 동국대에서 개최했다.

‘불교원전연구-중간 점검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과)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임승택 경북대 교수, 배상환 연구교수(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단), 양승규·김호규 동국대 강사가 팔리어·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한문 원전의 번역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12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원전연구’ 개선 토론회에서는 체계적인 기획과 번역 용어의 통일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성철 교수 “주제별 등 발췌 번역 해볼 만”**

**임승택 교수 “일관성 위해 용례집 삽입” 제안**

참가자들은 ‘<불교원전연구>가 불교원전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불교 원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불교원전연구> 현황을 점검하는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집중 논의된 문제는 체계적인 기획과 번역 용어의 통일, 열악한 번역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이다.

구별 통한 번역을 <불교원전연구>의 장점도 꼽으면서도, 이 같은 장점이 계획적인 번역이 필요한 문헌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번역이 자율에 맡겨져다 보니 중요한 저작이라도 번역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불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주제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김 교수는 “사상법 기획, 언어권별 기획,

인물별 기획, 또는 주제에 따른 발췌번역도 기획해볼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승택 교수는 “<불교원전연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번역 주제와 테마가 미리 설정돼야 소수 인원에 의해 이뤄지는 문헌 번역이 보다 효율성을 띌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환 교수도 “장기적인 기획번역을 통해 연구 성과를 축적해야한다”며 김성철 교수의 제안에 공감했다.

이어 비중있게 거론된 것은 번역 용어의 통일 문제. 한역본과 달리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베트어본 원전들에 나타난 개념들에 맞는 우리말이 마땅치 않아, 각 연구자들의 용어 선택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혼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불교학자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불교원전연구 우리말 표기안’을 만들지만 쉽지 않지만,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불교원전연구> 편집진이 표기안 마련과 공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승택 교수는 “일단 개인에 번역어 선정을 맡겨 두되, 스스로 선정한 용어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각 번역 단편 뒷부분에 용례집을 삽입하자”고 절충적인 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받았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4>

송구영신

2006년이 밝았다. 희망과 설레임 가득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과학기술 쪽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학법 갈등이 그렇고 황우석 교수 업적의 진위 논란이 그렇다.

황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1개로 보고됐던 줄기 세포가 실은 부풀려진 것인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2-3개의 줄기 세포조차도 조작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샘플의 바뀌치기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진실을 알기란 쉽지 않고,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검증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

어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에서 다루는 결과를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그 결과에 의해 연구비가 결정되고, 연구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연구팀 역시 사람들의 집단이므로, 연구원들 간의 경쟁심리, 연구결과와 공정한 분배 등이 항상 연구책임자를 어렵게 만든다. 일반 시민들은 과학기술 실험의 데이터가 얼얼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측정은 항상 사람들이 만든 기계로 하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줄기 세포를 얻은 황 교수팀이 당시 가졌던 흥분, 그리고 좀더 좋은 데이터를 내고 싶었던 심리상태에서 데이터의 부풀림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

##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로 전화위복 삼아야

### 단기적 현상에만 집착하는 태도 점검 필요

리고, 대상이 되는 세포자체가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관련자들의 개인적인 성향, 인간성 등에 대한 무거는 황 교수를 지지했던 시민들, 특히 과학자의 표상으로 여겼던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허탈감을 안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생명과학 접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황 교수팀의 부풀리기 의혹과 논문 조작에 대해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비판한다. 실제로 과학기술계의 논문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엄청난 이론과 데이터에만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러하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 아니 정치가 못지않게 정치적인 환경

다. 이는 점에 이해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를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인 많은 난자를 어떻게 채취, 공급하는가, 이에 따르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난자 대신 사용 가능한 대체 물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야말로, 황우석 기술(비록 단기적으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시비를 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자. 특히 생명과학 기술이라는 생명과 분자 차원의 구분이 애매한 문제에 직면할 때, 생명의 흐름이 무생물까지 이어진다는 부처님 법을 떠올려보자. 부처님 법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 박물관·기념관 허구성 포착

### ‘전통의 가면’ 임민수 사진展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시대별로 긍정적 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했던 전통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진전이 열린다.

1월 4-10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루스에서 열리는 ‘전통의 가면’ 임민수 사진展은 전통을 재현해내는 공간인 박물관 기념관 등의 사진을 통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이면을 드러낸 20여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들은 성철 스님 기념관의 성철 스님 영정에서부터 구암사 극락전, 독립기념관, 한국민속촌, 대종교 총본사, 지리산 약사도사, 안동 민속박물관, 접두산 순교기념관, 명동성당 성물보급소 등 종교와 전통의 벽을 넘어 다양한 시선을 담았다. (02)720-8488

김지연 기자

## 클릭! 전국 산사의 아름다움 가득

### 사진작가 안장현씨 부다피아에 세번째 갤러리 오픈

안개비가 촉촉이 내리앉은 부석사 무량수전, 메주를 동동 띄운 수덕사 장독대, 눈 덮힌 월정사(사진), 사진작가 안장현씨의 부다피아 사 이버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들이다.



답은 사람, 그곳의 아름다움 풍광들을 만날 수 있다.

도선사 김강사 용문사 청룡사 석남사 월정사 수덕사 선운사 내소사 천은사 선암사 백양사 능가사 미항사 지지사 용연사 해국사 부석사 오사 관음사 등 전국의 아름다운 산사가 고스란히 옮겨왔다.

부다피아의 일곱 번째 초대갤러리는 안장현씨의 ‘마음의 고향 산사의 향기’ (www.buddhapia.com/\_service/gallery/00000007)가 장식한다. 1월 4일 문을 여는 이번 갤러리에서는 안장현씨의 안내로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마음의 고향 산사의 향기’는 부다피아 아트갤러리 ‘사연건축’ ‘깨달음의 미소’에 이은 안장현씨의 세 번째 갤러리이다. 김지연 기자

## 한국 대표 詩들 노래로 제작

한용운, 신경림, 민영, 고은 시인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다. 가수, 작곡가, 시인, 노래운동가 등 여러 가지 일을 끊임없이 정열로 해내는 백창우씨가 한국의 대표적 인 시들을 엄선해 노래로 만드는 작업을 해냈다.

이 같은 작업의 결실은 책과 노래CD를 한 곳에 담은 <백창우 시를 노래하다> 1·2(우리교육)에 고스란히 수록됐다.

1권에는 일제 시대 시인 윤동주 이상 김소월 한용운 심훈 이육사 등과 재·월북 시인 이용악 함형수 조운 백석 오장환 등의 시가 포함됐다. 요철 시인 기형도 김수영 고정희 임길택 등도 실렸다. 2권에는 한하운 천상병 박용래 박목월 이광웅 등 작고 시인들과 나희덕 신경림 이상복 김지하씨 등 현대 시인들의 시가 두 장의 음반에 담았다.

김지연 기자



그림 : 문병성

##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상 화각
- 탱화 금각
- 개형 조각
- 불사상담
- 천불삼천불
- 불교용품

###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전화 02-491-5336, 02-494-7478  
공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등 술 합장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이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터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뻗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느린 상태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 건강개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필수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강 속에 있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 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www.chorokwon.com

혹영아리 혹영아리 황금영아리 황기막힌 특이들이와 황금으로 변합니다.

똥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변 세안으로 변화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이나 공장이나 조상묘지터부터 치방해 보십시오, 똥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월이 사라지고 허시는 일들이 잘되며 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첫번째이다. 명당옥(옥방 051)865-9933

전도제 49채와 결된 첫번째 전회주이면 인내 체자를 보내드립니다. 첫방전용 명당옥(옥방)은 각 시찰, 양지,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치방을 해보십시오.  
◆똥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화하여 허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관계나 삼계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계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도 노력해도 안되는분, 사주가 인종은 신분들은 명당옥(옥방)가 묘지방을 해보십시오.

명당을 만들어 주변 운이 바뀝니다 명당 옥방